

주인이란 마음가짐이 진리



간 믿어붙이고 싶을 때 한 두 첩 할만 하지만, 웬만하면 대중생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대산 북대에서 날 때가 공부 맛을 느끼고 수행의 보람과 행복을 비로소 느낀 때였지요.”

—오랜 수행과정에서 힘들거나 좌절할 적은 없었나요.
“고비도 있었지만 출가동기가 확실했으니까 밀바람에 잠고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나?’ 이런 고민을 안고 독서와 사색으로 하얀 밤을 지새운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발심 못하면 이 공부 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직 정진위주로 나아가다 보면 힘 들고 어려운 건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이지요.”

—스님께서는 성철 스님이 강조한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를 통한 구경각의 증득이란 수행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해 ‘오매일여(寤寐一如)’에 대해 어느 분이 ‘오와 매를 나누는 것이 이미 분별심이라 하면서,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관에 대해 반론을 제기

적으로 전하는 방법 같습니다.
“수행법이란 한 마디로 ‘마음 비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장맛만 알아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마음을 비운다, 쓴다, 놓는다, 고요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잡스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인데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고인(故人)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도 쉽다’고 하기도 하셨지만, 분주한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우는 것이 시작이고, 비워져야 고요해지고, 답답한 고요와 안정 속에서 화두나 염불 정진이 잘 되게 마련입니다.”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안심(安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글로벌 장기 불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난이 예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체감 고통은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동요하고 쪼들 때 괴로워하는 거죠. 10여 년 전 경기가 좋을 때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하기 전 삼페인을 먼저 터뜨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스컴이 국민을 너무 선동해서 좌지우지 해요. 사람들이 주변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초연하게 풍요될 없이 당당하게 소신껏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해요. 평소 마음가짐이 안정된 상태이면 불안이나 괴로움이 적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마음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정신과 육체가 평화로워지면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마음이 안락하면 집중도 잘 되고 어떤 일이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스님과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취자주(隨處作主)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곳에 따라 주인노릇 하면 선 곳이 바로 진리 자체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디 가도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란 마음가짐으로 내 것,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마구한 일에 빠지듯이 주인정신을 갖고 일한다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번지르 하면서도 인격과 삶이 대중의 사표가 되지 못하는 사이비(似而非) 스승들이 적지 않다. 무어 스님을 볼 때마다 한없이 자비롭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스승의 덕을 느끼게 된다. 스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 종통(宗統)과 실통(嗣統)을 두루 갖추고 언행이 일치되는 존경받는 우리 시대의 문수보살이 끊임없이 출현하길 기원하면서 문수산을 내려왔다.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백재환 기자 wanhollo@hanmail.net

한 번은 정진을 게을리 하고 밤새 절밭에서 놀다 들어온 수좌를 물에 처박아넣고 부목 옷을 입혀 산문 출승시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분은 기분이 좋을 때면 ‘씨부릴!’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망월사로 올라오기 전 냇가에서 한 수좌가 빨래를 한 후 빨가벗고 좌선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 잘 한 그 수좌가 선방을 떠날 때 종별사를 하기 위해 모아 둔 불사금을 몽땅 하사할 정도로 수행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셨지요. 절약하며 모아 둔 불사금을 전부 주시고선, ‘아~ 씨빌! 종별사 잘 했다’ 하신 그런 분이 출성 스님이셨어요. 가까워서 뵈니까 참 매력적인 분이었고 감격스러울 정도였습니까.”

—공부가 잘 되어 힘을 얻으신 때는 언제였나요?

“1970년경 오대산 북대에서 혼자 2년을 난 적이 있어요.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아득한 나만의 추억이라고나 할까요. 겨울에는 무척 추워서 부엌에서 불을 때고 변도 집안에서 봤어요. 밥은 큰 솥에다 한 20인 분 정도 해놓고 배고플 때마다 언 것을 녹여서 먹곤 했어요. 한겨울에는 굴뚝세 여섯 마리가 방에 들어와 함께 겨울을 난 적이 있어요. 토크 뒤에는 멧돼지 가죽이 배가고파 오곤 했는데, 굶어죽을 것 같아 무우랑 밥 지꺼기를 주며 같이 산 적도 있어요. 토크수행은 잡자는 시간이나 울컥시간이 관계 없이 24시

해 논쟁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되어 공부가 잘 되면 몽중일여와 오매일여의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깨치기도 합니다. 오매일여 단계를 지나갔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을 지나 서울 가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로 가는 분도 있었지요. 그런 분에게는 ‘오매일여’란 말도 굳더더기일 수 있겠지만, 육조 혜능 대사와 같은 훌륭한 종교적 전제가 아니고서는 바로 서울 가는 분이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도 극한의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끝낼 수 있듯이 가장 어려운 ‘오매일여’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매일여의 선정에는 들어야 하고, 오매일여가 되어도 은산철벽을 투과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해야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생사자재(生死自在),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난이라든지 일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나 번뇌망상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기계발서에서는 ‘비움’이나 ‘쉽’을 강조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선(禪)의 핵심을 쉽고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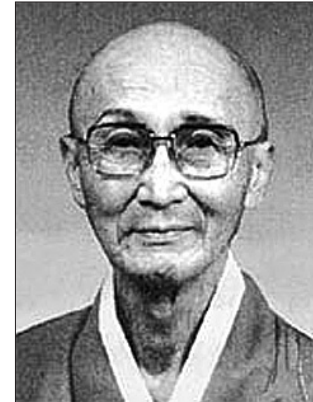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0. 선암사 강사 조종현 대화상

철은 조종현(1906~1989) 대화상은 전남 고흥 출신이다. 1906년 부처님 출가제일에 태어나서 17세에 승주 선암사 금봉 스님께 출가하였다. 쌍계사 재봉 스님께 법맥을 계승하고 선암사 경운 노사에게 강맥을 계승하였다.

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정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경희대학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사람이 늙으면 기운이 없어져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 나를 병들었다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 오늘이 꼭 보름이 되었네, 내가 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



17세에 출가 당대 강백들에게 수학...명강사·시조시인으로 ‘명성’

우리는 여덟 명이 상봉동 묘법사에서 2년 8개월 동안 선문염송을 들으면서 까마득이 세월을 잊고 있었다. 그 뒤 청량리에서 토요일 강좌를 하다가 종로에 포교사 전문대학을 만들어 안팎 스님을 학생으로 모시고 공부를 가르친 내력을 생각하면 아슬아슬하다. “한 법사, 자는 거여, 내일 일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보면 새벽 한 시다. “내일은 무슨 내일 입니까. 자정이 넘었는데요.” “나는 한국불교가 짙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한 가닥 빛을 본 뒤로는 잠이 오지 않네. 난 자네를 믿고 있어. 돈은 없지만 큰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약 8년을 지속하다가 84세 때 대한불교관음종 중정에 취임하면서 조종해였다. 종단에 일거리가 많아진 까닭으로,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너무나 세밀하여 모든 일을 조밀하게 잘 처

하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을 오라고 한 것은 마지막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오라고 하였어. 내가 죽고 나면 아무래도 장사를 치뤄야 할 것인데, 일 끝난 뒤 서로 장사를 치루겠다 하면 곤란하게 될 것 아닌가!” 홍파 스님이 말씀하였다. “저희 종단의 중정스님이시니 저희 절로 가서 열반을 하셔야 합니다.” 한 아들이 있다 말씀하셨다. “우리 8남매는 아버지가 스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족이 다 모여 가족 행사를 치루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장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임종은 집에 가서 하시고, 49재는 관음종에서 하시고, 저는 상락향에다가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 추모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당장 집으로 가자.” 그리하여 1990년 8월 30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 사람들은 시조시인협회 원로가 돌아가셨다 하고, 각 학교와 종단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강사, 원장님이 돌아가셨다 하였다. 왜냐하면 24세에 개운사 불교대학을 나온 이후로는 동화사 강사, 마곡사·선암사 강사를 지내셨고, 44세 때부터 발표된 동요와 시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의 편을 가진 시조시인이 되고, 세계펜클럽 한국위원이 되어 자유문학회와 공보부에서 주는 신인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스님은 한국문인협회 이사, 외솔학회, 시조작가협회, 동국문화회 교문을 지내면서 시조문학을 창간하여 이상범·조오현·김진동 등 16명의 일선작가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스님은 교육자로서 사찰교육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들에게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를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 (7.5 x 35cm)
- 육각초 - 7.5 x 45cm (적색, 핑크, 노랑, 연두, 주황, 백색)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주크, 원터치 연등감이 편

SMD LED전구(정품)
고추구 128, 고추구 128-A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요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범당용, 외곽용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안전지용초, 방생, 탐등이 행사용 청사초를 및 초롱 길이대

연 등(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